

보도시점 3.25(수) 석간 < 3.25(수) 10:00 >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는 첫 발걸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 전 국민이 혁신에 자유롭게 도전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
- ①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주체들의 참여, ②체계적인 성장경로 구축,
③도전·실패경험을 경력으로 축적하는 도전생태계 조성, 3가지 방향성 제시

정부는 3월 25일(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월 30일(금)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에 대한 후속 발표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1. 추진배경

정부는 지난 1월 30일(금)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지역 간 양극화된 ‘K자형 성장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창업’이 중심이 되는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 국민이 혁신에 자유롭게 도전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존 선정과 심사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창업 인재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2. 세부 추진방향

이번에 발표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모든 혁신 주체가 참여하는 하나의 창업생태계 구현을 목표로 3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①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성장경로 구축

창업가들의 폭넓은 도전을 위해 **예비창업가부터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는 재창업가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총 5천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할 계획이며, 지역 균형성장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솔루션을** 제공하여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AI 스타트업의 첫 구매자**가 되어 AI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규제로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규제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권역·대국민으로 이어지는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에게 **10억원 이상의 파격적인 자금 지원**과 글로벌 진출 등 후속 성장 패키지를 연계하고, 경연을 통해 선발된 **최종 100인**에게 집중적으로 성장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500억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를 조성한다.

②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주자들이 참여하는 혁신 창업플랫폼 구축

프라이머, 퓨처플레이, 소풍커넥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전국의 우수한 보육역량을 보유한 **100여개의 창업기관**이 창업자를 육성할 **보육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직접 선발한 창업가를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쳐 책임지고 육성하며, 창업자들의 오디션 진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받아 창업자와 함께 기관도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스의 이승건 대표, 뽀빠의 이세영 대표,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 등 선배 창업자 **500여명**이 전담 멘토단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후배 창업자들에게 경험과 노하우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여 선배가 후배 창업자들의 성장을 이끌어주게 된다.

창업가, 보육기관, 멘토단 등 창업생태계 혁신 주체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모두의 창업플랫폼’도 새롭게 문을 연다. ‘모두의 창업플랫폼’은 단순한 신청·접수 창구를 넘어 창업가·기관·멘토단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창업생태계 역할을 할 예정이다.

③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경력으로 축적되는 생태계 조성

도전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이 새로운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을 창업자 개인의 경력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행하고, 향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한 번 참여한 창업가들이 제2차 모두의 창업에 다시 신청할 경우 우대하여 재도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두의 아이디어(지식재산처)’나 ‘AI 경진대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서 발굴한 혁신 인재를 ‘모두의 창업’으로 연계하여 범부처 차원의 도전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3. 향후 추진계획

‘모두의 창업’ 개막을 알리기 위해 3월 25일(수) 오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선배 창업가, 보육기관, 후배 창업가가 한자리에 모여 ‘모두의 창업 발대식’이 동시에 개최된다. 발대식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어서 다음날인 26일(목) 모두의 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전 국민 대상으로 모집공고가 시작된다.

정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창업 열풍을 확산하기 위해 후속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AX, 방산, 기후테크 등 산업 분야별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두의 챌린지’를 시리즈로 개최하고 이어서 ‘지역 모두의 성장’을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도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현정 (044-204-7950)
		담당자	서기관	이현일 (044-204-7651)
			사무관	류지혜 (044-204-795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담당자	주무관	임혜진 (044-204-7954)
			과 장	김해남 (044-204-7290)
		담당자	서기관	김기현 (044-204-7854)
			사무관	김대욱 (044-204-7285)
			주무관	임예지 (044-204-7225)

참고 1 모두의 창업프로젝트 추진체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새로운 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창업 정책을 국가가 창업 인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설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운영 방향

01 | 분야·단계별 진행 프로세스



02 | 선배 창업가·운영기관 라인업



03 | 모두의 창업 플랫폼

